

# 세계 인권전문가들 광주서 '인권도시포럼' 연다

광주시, 10~11일 김대중센터서 국제기구 관계자 등 600여명 참석 '시민공간과 인권도시' 주제 논의 "국제사회·인권단체와 연대 모색"

세계 각국의 인권전문가들이 광주에 모인다.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광주시는 오는 10~11일 이틀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시민공간과 인권도시'를 주제로 열리는 '제14회 세계인권도시포럼'에 국내외 인권 활동가 및 국제기구 관계자 등 600여명이 참석한다고 7일 밝혔다.

세계인권도시포럼은 광주시와 유엔인

권최고대표사무소, 유네스코, 국가인권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며 인권 관련 기관·단체 등 국내외 28여개 협력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포럼에는 독일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인권 관련 전문가들이 광주에 모여 세계 인권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시민공간의 현실과 이에 따른 인권문제, 그리고 시민공간 확대 방안 등 이번 포럼의 주제인 '시민공간과 인권도시'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시민공간이란 개인과 집단이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하며, 이는 건강한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의 핵심 요소로 여겨진다.

구체적 행사는 10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회식이 열린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국내외 주요 인사들의 축사,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명예교수의 기조발제가 이어진다.

전체회의에서는 △백태웅 하와이대학교 로스쿨 교수 △이진순 재단법인 와글 이사장 △위브케 윈터 독일 뉘른베르크시 인권담당관이 세계 곳곳에서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시민공간을 둘러싼 인권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인권도시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인 시민공간의 형성, 보호, 확대방안, 모범사례에 대해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진다.

주제회의에서는 장애인, 여성 등 5개

세부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세부 주제는 △어린이·청소년(학생 시민이 만들어가는 학생자치와 세계민주시민교육) △여성(디지털 시민공간과 여성인권) △시민사회 활성화(시민공간의 확장과 시민사회 활성화) △장애(시민공간: 유니버설 디자인과 장애인권) △이주(이주민과 건강도시) 등이다. 국가인권위원회 특별회의에서는 '국제인권규범의 지역적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유엔인권제도 참여 촉진' 문제가 다뤄진다.

이밖에 광주시민인권실천단 워크숍, 전국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협의회, 전국 지자체 인권보호관협의회, 광주·전남 대학인권센터협의회 등 다양한 네트워크 회의도 열린다.

올해는 필리핀 인권 관련 공무원 및 인권활동가 15명이 포럼에 참석해 광주시 인권정책과 포럼을 벤치마킹한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광주시 인권도시포럼을 벤치마킹해 2016년부터 매년 인권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제14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전 세계 인권활동가들이 전 세계 인권을 논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큰 의미가 있는 자리"라며 "광주의 시민공간이 점점 좁혀지고 있는 시대에 국제사회·인권단체와 연대·협력 방안 모색 등을 위한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이 표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 전남도, 10월 남도 문화·예술 여행지 선정

강진 백운동정원 등 4곳

전남도는 남도의 특색이 깃든 문화·예술 여행지로 강진 백운동정원, 보성 열화정, 장성 금곡영화마을, 화순 고인돌 유적지, 4곳을 10월 추천관광지로 선정했다.

강진 백운동정원은 호남의 3대 정원 중 하나다. 국가지정문화재 제115호로 지정되면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곳이다. 원림의 제12경 운당원의 왕대나무숲은 TV 주말드라마 '환혼'의 촬영 배경으로 알려지면서 유명해졌다. 인근 강진만 생태공원에서는 오는 26일부터 11월3일까지 제9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가 열린다.

보성 열화정은 조선시대 전통 정원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어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정자다. 전통 한옥 양식의 대문과 아담한 연못, 정원에 심어진 빛나무, 석류나무 등은 주변 숲과 어우러져 고즈

넉한 분위기를 연출해 드라마·영화 로케이션 담당자에게 꾸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장성 금곡영화마을은 1950년대 소박한 시골 마을의 모습이 잘 보존된 곳으로 영화,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하다. 일반적인 드라마 세트장이 아닌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로 옛 모습이 정감있게 살아있다. '태백산맥', '내 마음의 풍금' 등 영화 촬영지로 잘 알려졌다. 100억 송이의 가을꽃이 만개하는 '황룡강 가을 꽃축제'가 13일까지 개최된다.

화순 고인돌 유적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화순 도곡면 효산리와 춘양면 대신리 일대 계곡을 따라 약 10km에 걸쳐 596기의 고인돌이 집중분포하고 있다. 고인돌 유적지에서 '2024 화순 고인돌 가을 꽃 축제'가 18일부터 11월3일까지 개최된다. 오지현 기자



재활용UP, 쓰레기 DOWN 위한 간담회

강기정 광주시장이 7일 서구 치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재활용UP, 쓰레기 DOWN 위한 찾아가는 간담회'에서 재활용 활성화 및 쓰레기 감량 필요성을 공유한 뒤 김이강 서구청장, 지역주민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나주 혁신도시서 '10회 빛가람 페스티벌' 개최

19~20일 혁신도시 호수공원 공연·체험 행사·푸드존 '다채'

전남도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인 '제10회 빛가람 페스티벌'을 19~20일 빛가람혁신도시 호수공원 일원에서 개최한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빛가람 10년, 추억을 담다! 미래를 보다'라는 주제로 혁신도시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즐기며, 지역상생발전 의미를 되새기는 프로그램으로 치러진다.

첫날인 19일은 개막식에 앞서 이전 공공기관 오케스트라 공연, 청소년 케이팝(K-POP) 댄스대회, 나주시소년소녀합

창단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이어지는 개막식에는 전남도, 나주시, 공공기관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하며, 온 가족이 즐길 광주시립교향악단 공연, 나주시립교향악단 공연, 통기타 공연(다목적실), 클래식 공연(빛가람 체임버 오케스트라), 인기가수 공연(먼데이키즈)이 열릴 예정이다.

둘째 날인 20일에는 빛가람동 주민의 마을합창단과 장구난타 공연, 이전 공공기관 동아리 콘서트, 도립교향악단과 나주시립합창단 공연, 전문댄스팀 공연, 통기타 공연(로맨틱 문)과 클래식 공연(리라 앙상블), 인기가수 공연(한동근) 등 문화 공연을 향유 기회가 적었던 지역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인다.

또한 어린이 비중이 높은 혁신도시 특성에 맞춰 준비한 어린이 놀이터(에어바운스)와 체험존, 힐링 캠프존, 푸드존 등 부대행사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지역 주민 30여 명의 셀럽이 참여한 플라멩코와 공공기관 연계행사로 진행한 한전KDN 사회적경제기업 상생마켓(31개)이 함께 진행돼 공공기관과 지역민이 하나 되는 화합의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장현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페스티벌 참여자 모두 소중하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많이 쌓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남도는 광주시, 나주시와 함께 빛가람혁신도시의 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 광주시, 'AI 바우처' 참여기업 3곳 추가 모집

11일까지...체험이용권 차등 지원

광주시는 다양한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를 시민이 직접 체험하는 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 인공지능기업 3개사를 오는 11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민·지역기업 중심 AI 바우처 지원사업'은 시민이 지역 인공지능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권(바우처)으로 일상에서 이용하고, 기업은 고객 확보를 통해 기술 고도화와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추가 모집에는 3개사에 총 4000만원의 이용권(바우처)이 차등 지원되며,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개선을 위한 맞춤형 상담(컨설팅), 투자유치설명회(IR)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인공지능(AI) 바우처 지원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광주 인공지능기업은 오는 11일까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누리집(http://www.aica-gj.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노병하 기자

지난 1, 2차 모집을 통해 총 28개사 지역 인공지능기업의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여 시민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이 가운데 ㈜인더스는 카메라로 얼굴의 혈류색 변화 등을 감지해 생체정보와 치매 여부를 체크하는 서비스를, 제니스테크놀러지는 가정에서 당뇨·신장질환·체지방·방광염·전립선염 등 다양한 질환을 체크할 수 있는 '휴대용 인공지능 소변분석기'를 선보였다.

㈜인디제이는 이용자의 얼굴표정, 목소리 등 감정을 유추한 인공지능 음악 추천 서비스를, ㈜아이클로는 구강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원격구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이 사업을 통해 광주시민은 일상에서 편리하고 혁신적인 인공지능 서비스를 경험하고, 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 기업들의 적극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 광주시, 제12회 인권작품 공모전 수상작 선정

'진짜같은 가짜들의 세상' 대상

광주시는 7일 '제12회 광주시 인권작품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공모전은 광주인권현장의 실정을 높이고, 인권문화 확산과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해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6월3일부터 8월26일까지 직장, 학교, 가정 등 일상 속 인권 침해 및 인권존중문화 확산 등을 주제로 아동·청소년부, 일반부로 나눠 △포스터 △4컷 카드뉴스 △동영상 3개 분야에 대

해 전국 공모를 실시했다.

공모 결과, 총 92점의 작품이 접수(포스터 73점, 4컷 카드뉴스 5점, 동영상 14점)됐으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예비심사, 최종심사를 거쳐 최종 13점(대상 1점, 최우수상 3점, 우수상 9점)이 수상작품으로 선정됐다.

대상에는 4컷 카드뉴스 분야의 '진짜같은 가짜들의 세상'이 선정됐다.

분야별 최우수상은 △포스터(아동청소년부) '아동학대, 외면하지 마세요' △4컷 카드뉴스(일반부) '딤페이크의 인권

침해' △동영상(아동청소년부) '작은 배려로 다문화 인권 보호'가 각각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광주광역시 상장과 시상금이 수여된다.

또 수상작품은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광주시 누리집(https://www.gwangju.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광수 인권평화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일상 속에서 다양한 인권 가치를 발견하고 실천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인권친화적 문화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진일보 @jnilbo Kakao Talk: 진일보 E-Mail: jebo@jnilbo.com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